



인터뷰 =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④

인도 시크교 대표 싱 하르다르선

“의료보험·산재보험 혜택 받게 해주세요”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운영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202-1번지에 위치한 구르드와라 시리싱 사바 사해브(GURUDWARA SHRI SINGH SABHA SAHIB)에서 인도 시크교 대표 싱 하르다르선(사진·33)씨를 만났다.

싱 하르다르선 대표는 한국에서 생산된 섬유, 전자 등 다양한 상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무역회사 유진무역을 이끄는 대표다. 싱 대표는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사람이 좋아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싱’이라는 성은 시크교의 유명한 지도자에 의해 1699년 카스트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싱’ 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시크교인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현재 이곳에서 매주 기도하고 있는 시크교인들은 사업가, 노동자, 학생, IT엔지니어 등이 대부분이며 90% 이상이 경기북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천여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크게 행사할 경우에는 500명 이상이 모이고 매주 100여명 이상이 모여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십시일반 모아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을 위해 돈을 모아 비행기표를 구하고 인도로 보내기 직전에 있다고 한다.

이날 오후 2시 구르드와라 시리싱 사바 사해브에 도착했을 때 150여명 되는 공간에서 시크교인들이 정확하게 줄을 맞춰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 오

는 어떤 사람들이든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입장할 때 담배소지 여부를 묻기도 했으며 터반을 쓰지 않으며 입장이 불가하며 스카프라도 써야 된다며 준비된 스카프를 머리에 돌려주며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한국에 온 시크교인들은 대부분 편잡지방(시크교의 발원지)에서 온 사람들이며 편잡지방에는 5개의 대학이 있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수입은 월 100만원 정도이다. 인도 편잡지방에서의 월 수입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 1개월에 10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 싱 대표는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처리 해주지 않는 점과 시크교인들은 탐건을 쓰고 수염을 기르도록 되어 있는데 사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으면 일을 사기키 않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다.

싱 대표는 “우리는 무슬림이 아닙니다.”라며 한국사람들이 시크교인들을 무슬림으로 잘 못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함께 자리한 이들은 “매월 월급 받고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잘 되기를 매일 아침 기도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서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한다.

대지 200여평을 구입해 150여

평의 건물을 짓고 기도처로 만든 이곳에 들어간 예산이 4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이곳을 찾는 인도 시크교인들이 1만원, 2만원, 5만원 등 십시일반 모은 것이라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곳에는 목사와 요리사에게만 월급이 나가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봉사자다. 함께 와서 봉사하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신앙공동체라고 한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싱 대표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 진료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바라는 사항은 “월급을 제 때 지급할 것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싱 대표는 “인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검증하여 비자를

내 주었으면 좋겠다.”며 “이곳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겁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경제발전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들이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것이 싱 대표의 생각이다.

인도정부의 입장에 대해 싱 대표는 “인도에도 일자리가 많은데 하필 불법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한국에 왔다는 싱 대표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편잡지방에서는 ‘Horn please’(경적을 울려주세요)를 차 뒤에 붙이고 다닌다고 한다. 이는 먼저 지나가고 싶거든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라는 뜻이라며 남을 배려하는 시크교 사상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건설업 경영층 안전보건 연찬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주최 특강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3월16일 의정부시 삼천리웨딩홀에서 건설업 경영층 5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2007년 건설업 경영층 안전보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정용택)의 2007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에 이어 남광토건(주) 권순섭 상무의 건설업 안전경영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안전확보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인식시키고 아울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병갑 기자 jk61@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웅 본지지원위원

용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라 합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것만큼 참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입니다. 확실히 상대방을 보복하는 방법은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처지가 되어 살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 아니 품속에까지 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설령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해주세요.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 좋은 글 중에서- (문의 011-342-5834)

서울지방보훈청장 의정부지청 초도순시

장대섭 서울지방보훈청장은 3월 15일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류종열)을 초도순시하여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의정부시 보훈단체장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대섭 청장은 “BSC 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타 기관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발전적인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발전하는 의정부보훈지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섭 청장은 의정부시 삼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보훈처는 앞으로 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심 선양을 위해, 친절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이며, 단체장님께서도 보훈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보훈가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길”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2

나 어렸을적에

우리 집은 2살 터울로 딸5명이 있었다. 기다란 방 1칸에 군부대처럼 나란히 누워 자곤 했다. 난 그 중에서 좀 잘난 딸이 되고싶어서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했다. 문 쪽에 남은 조그만 공간에 작은 밥상을 펴 놓고 혼자 시험공부를 했다. 그땐 출세나 미래의 꿈은 나의 관심 밖이었고 대의 시험을 잘 보면 큰형부가 용돈을 주셨고 얼마 아빠가 언니 동생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이었다.

옛날 집의 겨울은 쥐들이 밤이면 천정에 놀다 배가 고프면 방안에 자주 출현하곤 했다. 그날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쥐가 화장대에서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래서 숨이 멎었는데 이 쥐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도망갈 생각



없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시험공부도 못하고 쥐가 겁나서 조용히 조심조심 잠자리에 누웠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쥐는 너무 무섭다. 딸아이가 시험공부를 하느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데 난 문득 그때 생각에 젖어본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다.

토끼눈을 하고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안스럽다. 공부하는 1등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 과정일 뿐인데, 하지만 부모마음은 내 아이가 뒤쳐질까봐 애가 탄다. 성적이 잘나오면 삶의 피로가 쌓가 되는 것은 육신일까? 보람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래서 숨이 멎었는데 이 쥐는 내 눈을 마주치지도 도망갈 생각

시인의窓

도리돌 동장군 축제

이인웅(시조시인, 포천문인협회 회원)

산 좋고 물이 맑은 포천시 백운계곡

날뛰기 팬이치기 눈썰매 송어낚시

옛 추억 파노라마가 필름처럼 스킨네.

<감상노트>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자연을 그리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언제부턴가 자연과의 상식적 거리가 문란해지면서 서로는 싸움이 시작됐다. 이미 세상은 자연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과연 자연이 훼손된 '문명의 이기'를 포용할지 아니면 준엄한 심판

웅장한 얼음 기둥 곳곳에 솟아 있고

고드름 얼음 꽃으로 수놓은 얼음 터널

동장군 겨울 낭만이 서리서리 어렸네.

을 내릴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자연과의 원초적 통로는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 시인은 사람과 자연과의 회복의 다리를 잇는 아름다운 우체부다. 세상이 자연과 화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생명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백운계곡에 오는 봄이 또 누구의 것인가. 안 익 수(시인)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명사 초청 강의



북한의 핵실험과 4강 구도에서 6자회담의 성공이라는 현실을 바로 알고 온 국민이 함께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참여 하고자 통일교실을 개최하오니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35-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현실 설명회

- ▶개최일시 : 2007년 3월 23일(금) 14:00~16:00
▶강의장소 : 포천시복지회관(노인대학 강당) 2층
▶강의제목 : 4강의 권력구조와 북한의 현실
▶강 사 : 설용수 박사 (전 세계일보 사장, 현 남북사회문화연구소 이사장, 통일교육원 교수)

민주평통 경기도지역회 포천시 개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도 지역회에서는 3월중 월례회의를 포천시청에서 개최합니다.
▶개최일시 : 2007년 3월 28일(수) 11:00~13:00
▶회의장소 : 포천시청회의실
▶참석예정 : 경기도 지역회의 임원(경기도지사 유용근), 경기도 시군협의회장, 사무처 경기 담당관, 포천시 협의회 임원, 포천시의회 의원 등
▶진행계획 : 시정홍보, 지역회의 안건, 사무처 공지, 오찬 및 중요문화재 답사 등

명사초청 통일강의

- ▶개최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14:00~16:00
▶강의장소 : 포천시복지회관(노인대학 강당) 2층
▶강의제목 : 최근 동북아 정세와 민족의 혼
▶강 사 :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